

올바로 알고 올곧게 대응하기

공연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및 대응 매뉴얼



올바로 알고 올곧게 대응하기

공연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및 대응 매뉴얼

그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제도화되었고, 많은 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신고하라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들이 있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달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심리적, 신체적 치유와 더불어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역량강화'될 수 있는 주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문화가 조성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매뉴얼은 공연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통계 분석을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 제공을 통해 공연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교육적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공연예술계 당사자들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의식과 태도를 바꿈으로써 근본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뒀습니다.



I. 성폭력 제대로 알기

성희롱·성폭력 개념	7
------------	---

II. 공연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공연예술활동 현장에 대한 인식	14
예술인들의 성 인식	15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	16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발생 이유	20
공연예술계 성폭력 발생 특징	21

III. 성폭력 대처하기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24
조력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25
2차 피해의 의미	26
2차 피해를 막는 방법	27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	29
성폭력 사건 해결지도 따라 길 찾기	30
Q&A로 성폭력 대처 방법 더 알아보기	31

IV. 성폭력 예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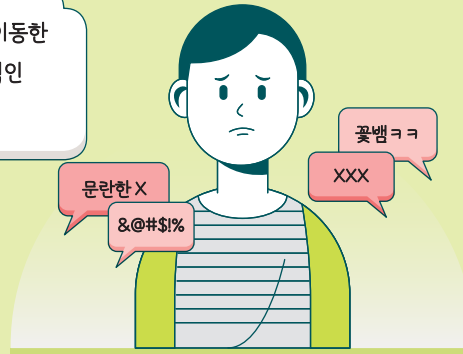
성폭력 예방교육	38
성폭력 근절 방안	40
성희롱·성폭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43

※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규율 및 법령	44
※ 기타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자료	49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49

일상에서 잦은 성희롱·성폭력 이야기

상황 1

기획사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차에 태워 먼 곳으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제게 사귀자고 했어요. 이를 거절하자 SNS에 성적인 유언비어를 퍼트렸습니다.



상황 2

술자리가 잦은데 저 같은 여성에게는 술자리에서 걸그룹 춤을 추게 하거나, 남자 후배들에게는 속옷만 입고 춤을 추도록 하곤 했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남자동료는 여자동료들에게 “너희 잤니?”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치스러움을 느꼈어요.



상황 3

지방 공연에서 동료 배우들과 숙식을 하게 됐어요. 회식이 있어 술을 마시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는데, 기분이 이상해 눈을 떴더니 동료 배우가 제 몸을 더듬고 있었어요.



상황 4

무명배우에게 과도하게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야기 전개에 필요하지도 않는 여성의 노출 장면과 성적인 대사를 넣기도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무명배우들은 어쩔 수 없이 노출을 강행하곤 해요.



상황 5

공연 후 동료들과 잦은 술자리를 갖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아가씨로서 접대’를 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일을 따내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어리기는, 철이 없다”라는 말을 듣곤 했어요. 그 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차적으로 선배와 동료들의 반응이 그러하니 침묵하게 됐어요.



상황 6

공연예술계는 작업 환경이 열악해 분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따라서 신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슴에 뭐 좀 넣어”, “너는 주인공 말을 얼굴이 아니야”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자주 합니다.



성폭력 제대로 알기

성희롱·성폭력 개념

7

성희롱·성폭력 개념

성희롱

- 현행 성희롱 관련법상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구분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행위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피해자	불특정	불특정	다른 근로자
업무 관련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행위의 양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성적 언동 등, 그 밖의 요구	성적 언동 등, 그 밖의 요구
행위	1.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거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

- 성폭력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거부할 권리',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 관련 범죄

강간 관련 범죄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교섭(성기 삽입)을 하거나(강간),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유사강간) 등이 있다.

• 강간 관련 법률조항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7조 (강간)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4조 (특수강간 등)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339조 (강도강간)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추행 관련 범죄

성교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비자발적 성적 접촉하는 것을 추행이라 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은 준강제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

• 추행 관련 법률조항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298조 (강제추행)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간음 관련 범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준강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말한다.

• 간음 관련 법률조항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4조 (특수강간 등)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음란행위 관련 범죄

대법원은 ‘음란’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음란행위 관련 법률조항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245조 (공연음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및
촬영행위

• 공공장소 침입 및 촬영행위 관련 법률조항

관련조항	범죄행위 내용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의 퇴거요구 불응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근거법률 :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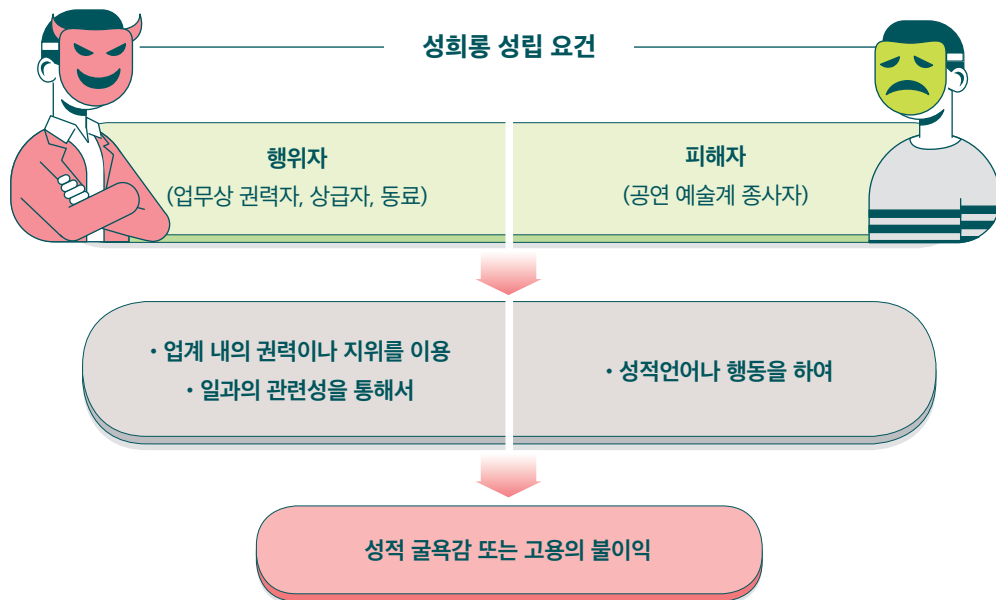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2018),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성폭력은 범죄행위의 책임을 행위자 개인에게 두고 개인을 처벌하는 반면, 성희롱은 직장(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직장(조직)도 함께 지도록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개인이 아닌 행위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장에게 징계할 것을 주문하고 예방 및 처리 책임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희롱 판단 기준을 2018년 4월에 처음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성범죄를 판단할 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 둘째, 성희롱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노출되어 발행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정신적 피해 같은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 셋째, 권력의 하위에 있는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할 때 불안감, 두려움을 느껴 소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희롱을 판단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 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이후 성희롱 관련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성희롱 관련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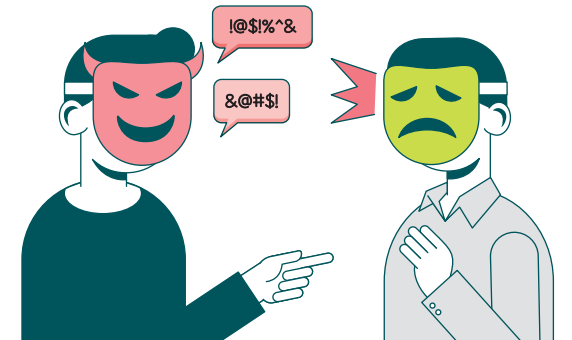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공연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공연예술활동 현장에 대한 인식	14
예술인들의 성 인식	15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	16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발생 이유	20
공연예술계 성폭력 발생 특징	21

잘못된 성인식 및 인지



상황 1

창작지도 및 수행과정에서 지도자나 교사가 예술인의 일탈행위를 권장하거나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람도 한번 펴봐야...

상황 2

예술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노출씬이 있을 수 있고, 신체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너 엉덩이가 아주...



상황 3

성적 농담이나 행위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요?

공연 나오려면 나랑 한번...

상황 4

배우의 역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출부 스텝이 배우의 사적인 부분까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과도하게 하는 조직 문화를 당연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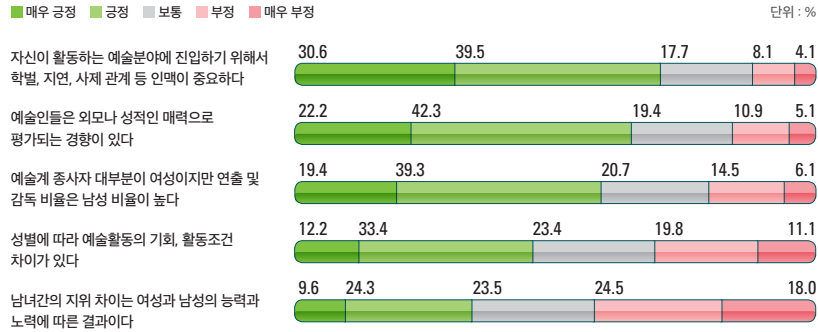
섹스는 해봤어요?



공연예술활동 현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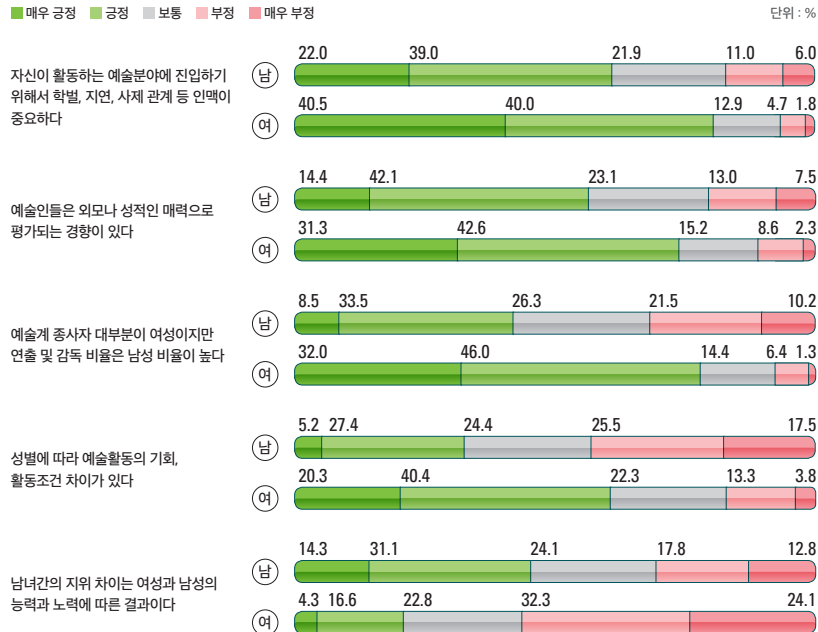
공연예술활동 현장에 대한 주요 인식 (남녀 전체)

예술인들이 공연예술활동 현장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술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 인맥이 중요하고 외모로 평가 받는 경향이 있으며 성별에 따른 예술 활동 기회나 조건에도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



공연예술활동 현장에 대한 주요 인식 (남녀 개별)

공연예술활동 현장에 대한 인식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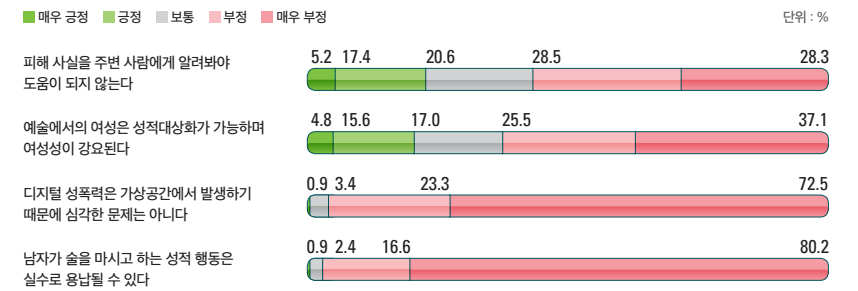


예술인들의 성 인식

예술인의 성 인식 (남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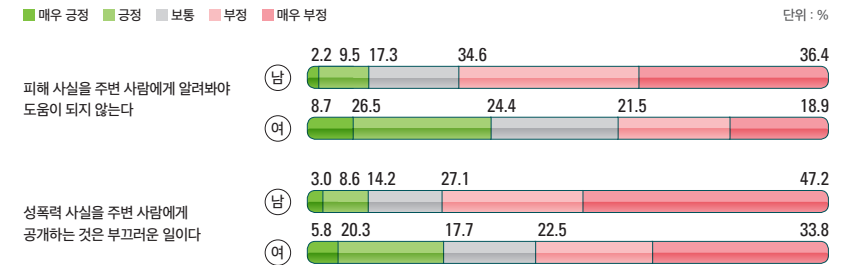
‘피해 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알려줘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긍정: 22.6%), ‘예술에서의 여성은 성적대상화가 가능하며 여성성이 강요된다’(긍정 20.4%) 등에 대한 응답의 긍정 비율이 20%가 넘어, 예술계내의 성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이에 대처하고 폭로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 ‘남자가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될 수 있다’(부정 96.7%), ‘디지털 성폭력은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부정 95.7%)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임.



예술인의 성 인식 (남녀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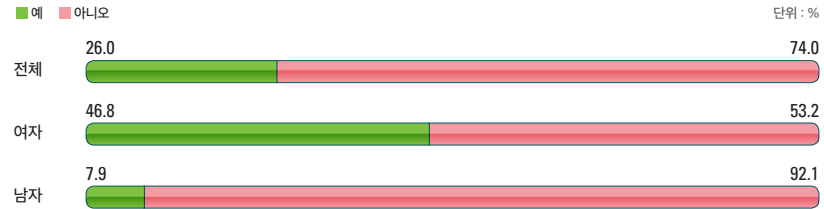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 남녀별 인식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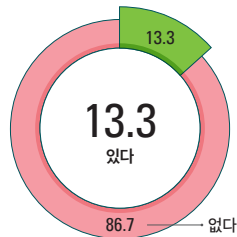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26.0%로 나타남. 특히, 여성들의 46.8%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여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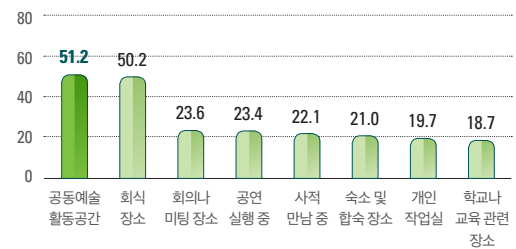


시각적 성희롱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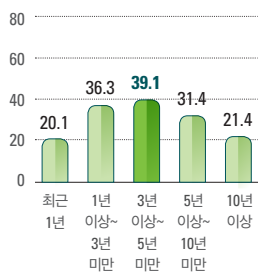
시각적 성희롱 피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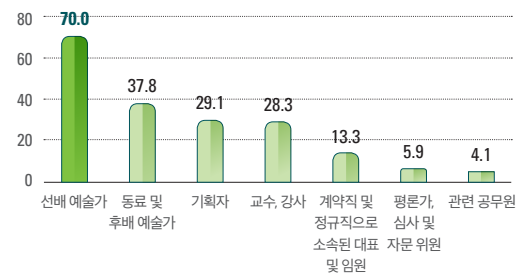
피해 장소



피해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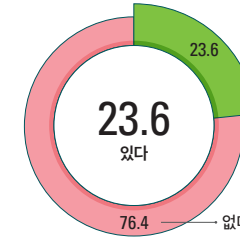


피해 시 가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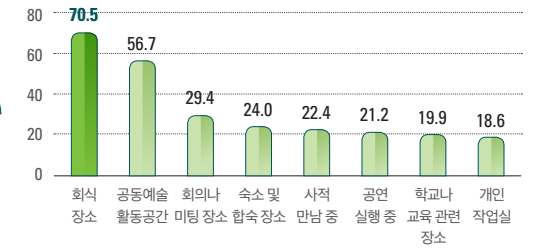


언어적 성희롱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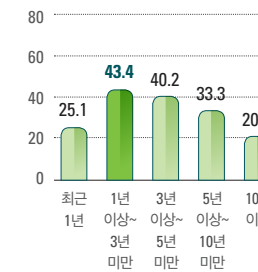
언어적 성희롱 피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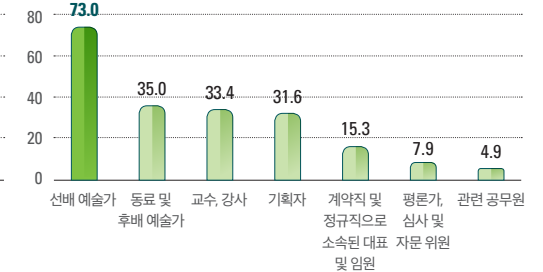
피해 장소



피해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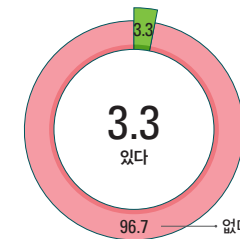


피해 시 가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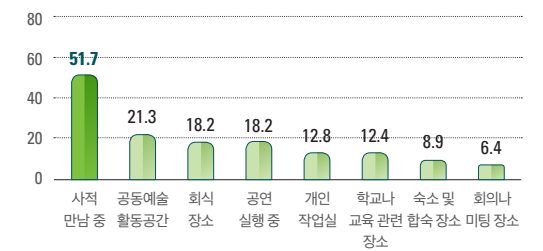


스토킹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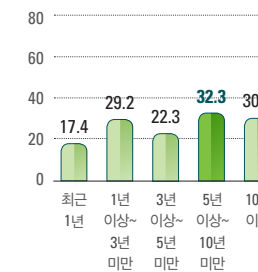
스토킹 피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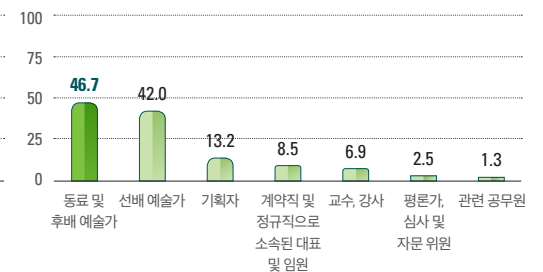
피해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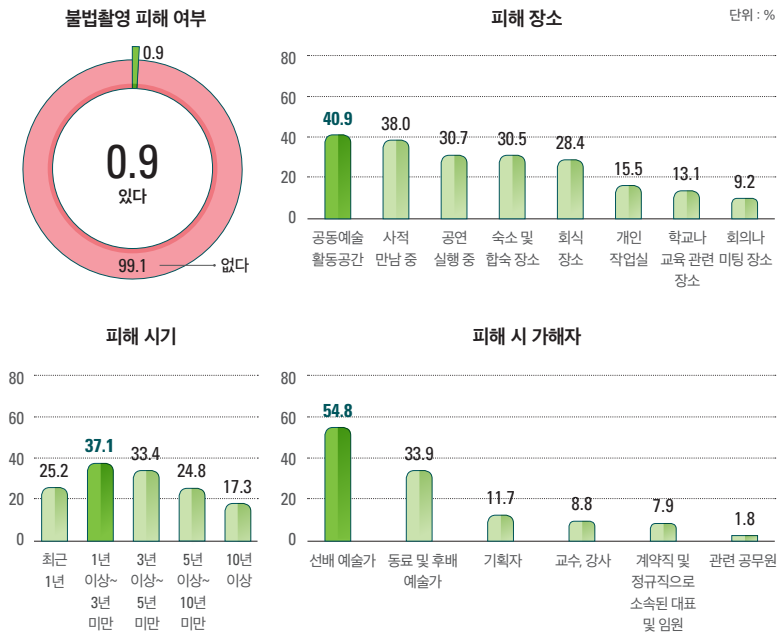
피해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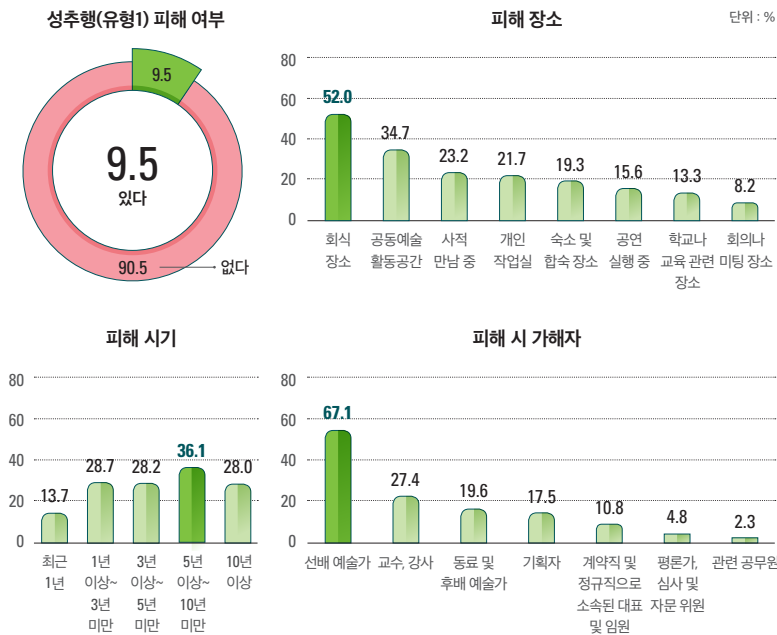
피해 시 가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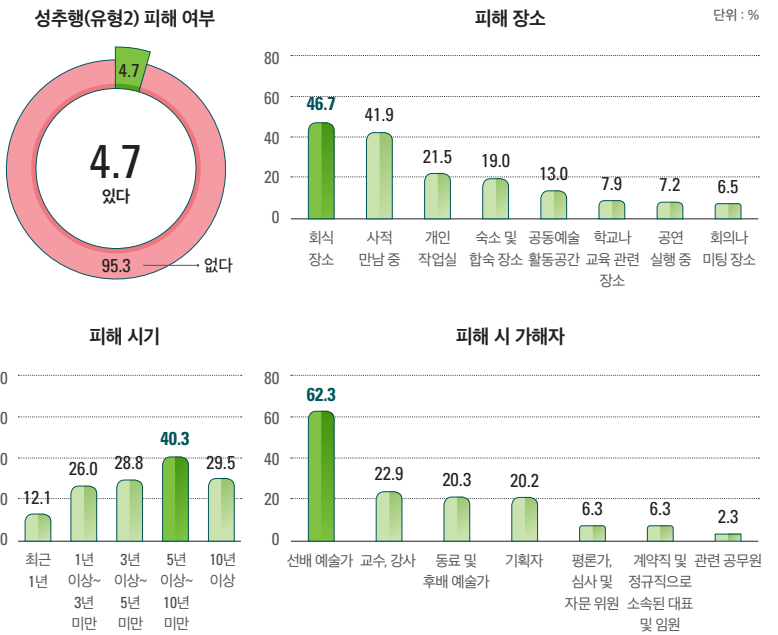
불법촬영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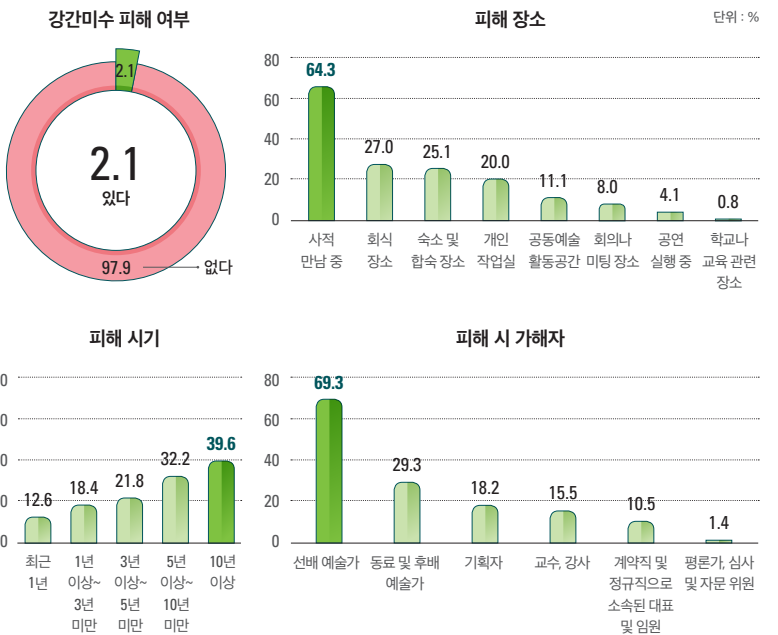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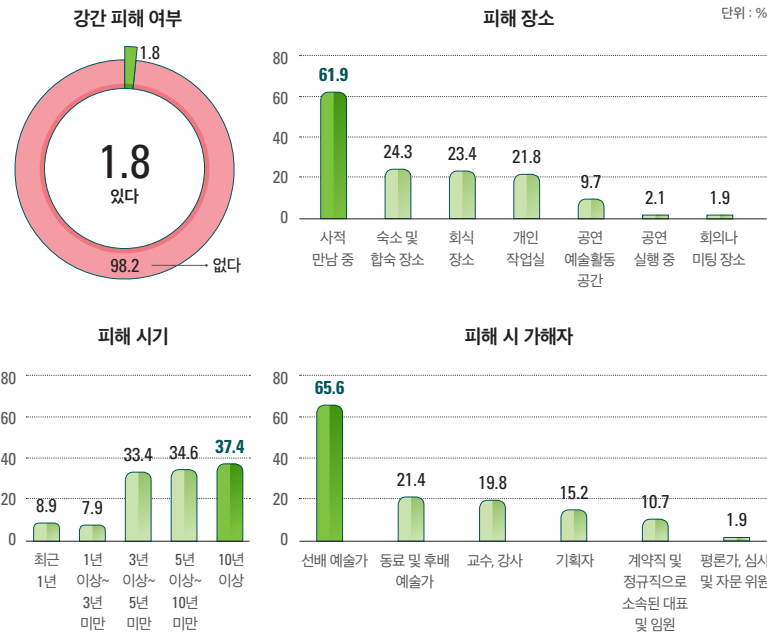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피해



강간미수 피해



강간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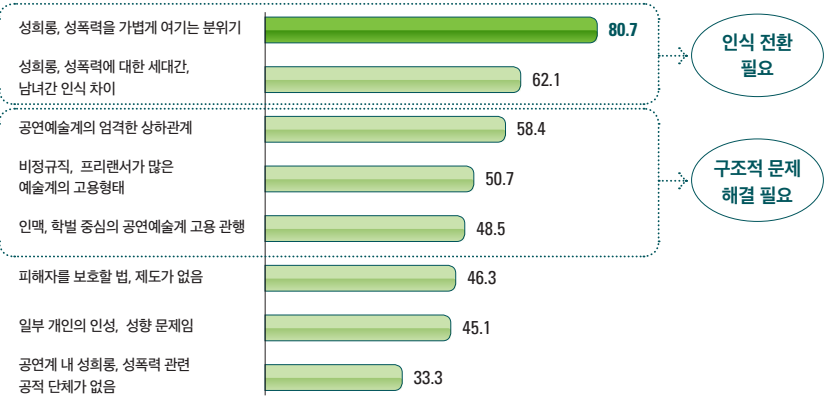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발생 이유

공연예술계 성폭력 발생 이유

성폭력 피해자들은 공연예술계의 인식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상: 성폭력 피해자, 단위: %, 중복응답



공연예술계 성폭력 발생 특징

위력관계에서 발생

- 작품 활동을 위한 공간, 비용 등의 지원을 핑계로 지속적인 연락, 접근
- 오디션 등의 합격여부를 놓고 성적인 관계 요구
- 음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프로듀서의 성적인 제스처 등에도 대응하지 못함
- 극단에서 작품에 캐스팅되기 위해 감독 등의 성희롱·성폭력을 묵인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

- 평소 친분이 있거나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의 선배에 의한 스킨십
- 친한 선생님과의 술자리 이후 성폭력 발생
→ 여성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좁은 업계의 특성상 신고 불가
- 아버지뻔 되는 교사가 막내 스태프를 챙긴다며 잦은 스킨십
- 친분이 있고 함께 활동하는 예술인과 술자리 후 성추행 발생
→ 예쁘고 친하고 편해서 실수한 것이라고 합리화

공동체·집단 창작 환경

- 해외 공연 시 외부와 격리된 채 숙소생활 병행→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성폭력이 더 쉽게 발생
- 지방 공연의 경우도 숙소 장소가 한정적이라 같은 공간에서의 성폭력에 취약
- 성폭력 피해 이후 업계(조직, 집단)내 작품 활동에서 소외→ 피해자를 부담스러워하는 업계의 분위기

일과 일상생활의 모호한 경계

- 일반 회사의 '직장' 개념과는 다른 공연예술계
- 일의 연장으로써의 잦은 뒷풀이 또는 회식→ 의무적·강요적 분위기
- 뒷풀이, 회식자리에서 이어지는 (여)배우들의 술 접대 문화→ 스킨십·성희롱 발생
- 업무 편견(성별)→ 기술직(음향, 조명, 무대 등)에서의 여성 업무 과소 발언

작품에서의 성적 대상화

- 배우의 절실함과 조금한 심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신체 노출 요구
- 무명배우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노출 강행 사례
-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이 쾌락을 즐기는 장면만 나열
- 여성의 불필요한 노출과 성적인 대사 삽입
→ 성적 판타지 자극을 위한 욕구 충족의 도구로 이용
- 올 누드 공연 연출 강행
- 주인공을 통한 섹스어필을 통해 티켓을 소비하게 만드는 사례

성폭력 대처하기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24
조력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25
2차 피해의 의미	26
2차 피해를 막는 방법	27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	29
성폭력 사건 해결지도 따라 길 찾기	30
Q&A로 성폭력 대처 방법 더 알아보기	31

일상에서 잦은 성희롱·성폭력 이야기



상황 1

배우들의 분장실에서의 대화가 이성의 신체에 대한 품평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대화를 듣고도 우리로선 특별한 다른 대안은 없어요.

상황 2

노출션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건 아주 형식적인 질문일 뿐, 노출션을 하지 못하면 배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업계의 근본적인 문화는 변화가 없죠.

노출션 할 수 있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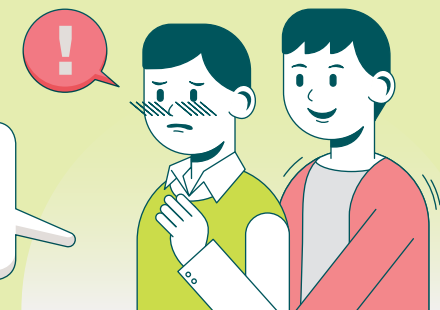
상황 3

각자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내 숙소는 몇 호다, 혼자 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싫어서 대꾸도 안하고 있었는데 제 방문을 막 두드리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어요. 정말 대책이 없더라구요.

나 혼자있어~

상황 4

둘이서 숨어 있는 씬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숨어있는 장소에서 엉덩이를 토닥이는데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피해자라는 위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무엇이어야 하는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사건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는 어떤 경험을 하며 그것은 그/그녀를 어떤 존재로 변화 시키는가?

성폭력 사건 해결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가해 행위를 완전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을 복원하는 것이며 그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는 시점에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미해결을 판단하는 주체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규정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보다 강한 객관성을 지닌 해석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희롱·성폭력은 가해자 잘못입니다

피해자는 대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계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 행위입니다.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쾌감 느꼈다면 문제제기하세요

상대방의 언행에 불쾌감을 느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 당했어요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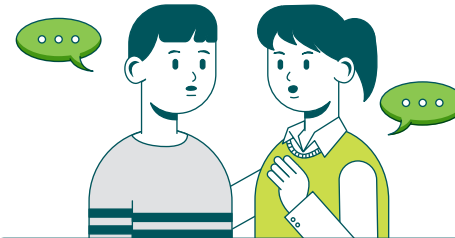
출처 : 고용노동부(2017),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조력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조력자가 가져야 할 위치는 무엇인가?

성폭력 피해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침범당하고 ‘나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사회화 과정을 침범당하는 고통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가 타인이나 세상과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지지자를 만나는 기쁨으로, 조력자는 자신의 성장과 성찰의 기회로 서로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이 개인성과 관계성을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폭력 피해 극복이라는 오랜 여정에서 치유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나눔터」



안내자 위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해결을 모색하기

- 조력자는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위치가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같이 의논해나가는 안내자의 위치에서 만나야 합니다.
- 피해자가 조력자를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조력자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신뢰관계가 깨지는 않을지 두려움을 가진 채 방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안전한 것들만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조력자의 올바른 역할이 아닙니다.
-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공유하며 같이 해결을 모색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우울증과 무력감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 피해자가 조력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인하고 조력자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조력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 피해자의 우울과 무력감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2차 피해의 의미

2차 피해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2차 피해' 개념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즉, 1차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사재판과정을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을 2차 피해라고 부릅니다.
- 2차 피해는 1차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지속시키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어렵게 합니다.
- 2차 피해는 '사회적 강간(social rape)'이라고 불리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말을 성통념에 의거해 불신하거나 피해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외나 배제를 경험하는 일, 법정에서 판사가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고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일 같은 것이 2차 피해의 대표 사례입니다.
- 피해자가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배려와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 언론이 사건을 잘못 재현해서 피해자가 꽃덀 취급을 받게 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으로 사건 자체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도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 2차 피해가 강력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이전의 성경험 등 매우 개인적인 선호와 경험에 근거할 때도 있지만,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도 2차 피해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피해자가 어떤 인종인지,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므로 2차 피해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속해있는 집단 전체와 관련돼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는 방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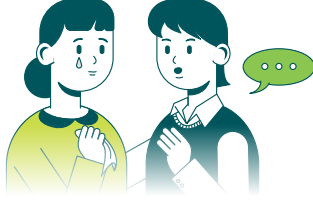
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최근 "#OO계 내.성폭력" 이슈화에서 보듯이,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OO계")의 독특한 상황·문화·구조가 어떻게 성폭력적인 문화와 연관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2차 가해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문제를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 '공유된 책임'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공격이 아닌 소통을 위한 개념으로서의 '공동체 내 해결'을 중심으로 '공동체 내부적인 성찰과 변화의 지향'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성찰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 성폭력 사건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고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 왜곡된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발생한 것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공론화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에 맞는 더 적절한 행동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 '2차 피해', '2차 가해'를 지목하고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이, 왜 '2차 피해', '2차 가해'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공동체 내부의 성찰과 변화를 만들고 더 다양한 성폭력 피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곧 주변 사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함께 노력하여 도움을 줍니다.
- 피해자의 대응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 문제 발생 이후 소문 유포 등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아야 합니다.
- 화해라는 명목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회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폭력 사건을 당사자의 평소 행실, 능력, 성격 등과 연관 지어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예술 활동을 중단하거나, 예술계를 떠나
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부의사 표현



증거자료 수집



동료, 지인, 상담원 등에게
면담 요청



단체나 조직내의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

- 사건이 일어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기록
-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닌, 내용을 전해들은 제 3자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
- 빠르게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도 하나의 대처 방안
- 가해자에게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
- 심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경우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

출처 : 성희롱국가인권위원회(2013), 「성희롱 예방 안내서」

성폭력 사건 처리 해결 시 문제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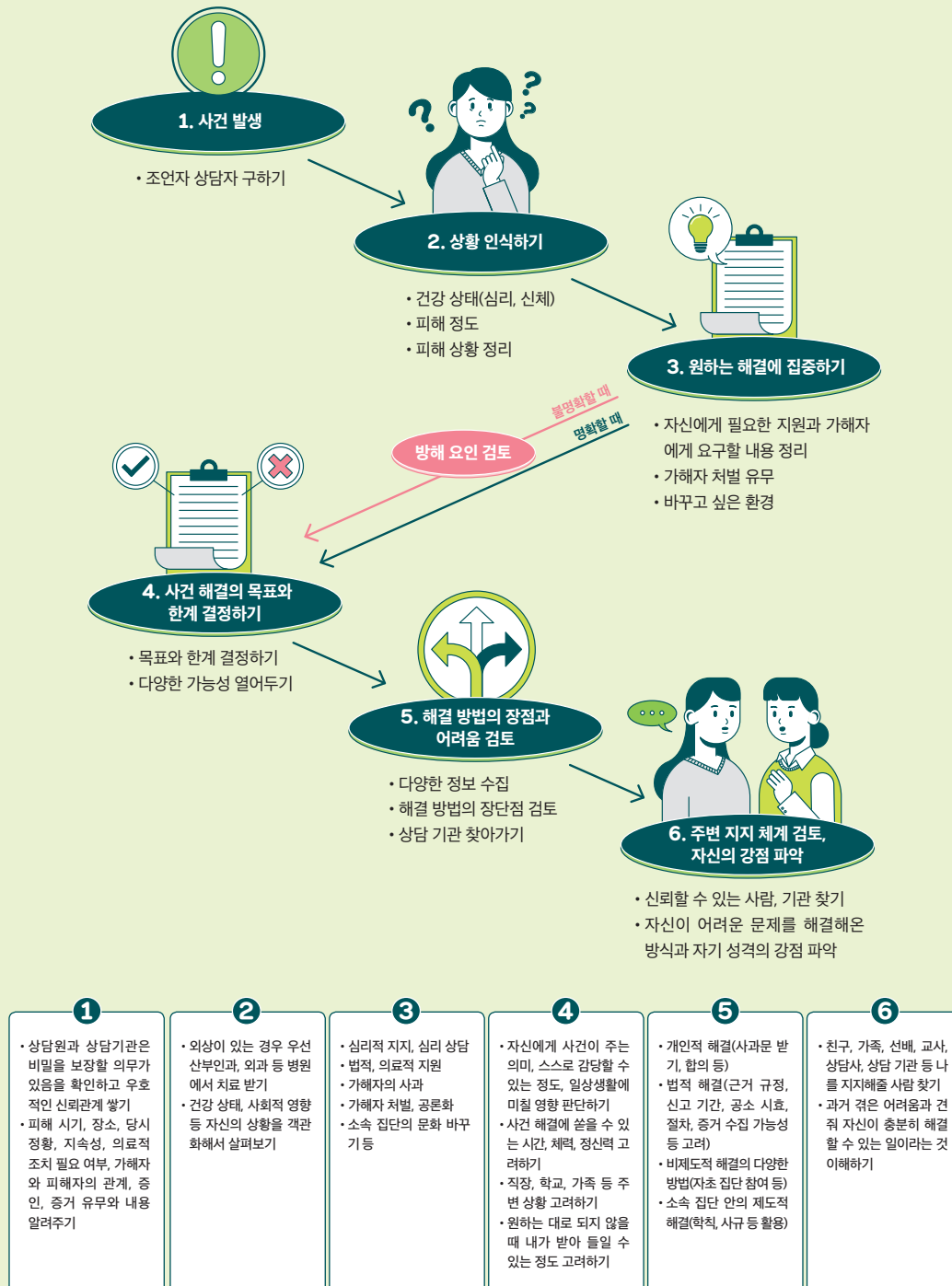
* 피해자의 요구 및 욕구와 ‘공동체 내’ 사건 해결 역량의 불일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감정적인 관계상의 갈등과 무력감이 존재하거나,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계속 유지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과 분노 등의 마음이 존재하면서 가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을 의뢰하나 공동체는 성폭력
력에 대한 감수성이 낮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성폭력 사건 과정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에 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

* 사건해결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나침반 부재

성폭력 최초 사건 발생 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해정도, 피해상황 정리 등 다양한 사건해결 방
법에 대한 숙지 후 자신의 상황과 지지체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임. 그러나 당장 피해는 입었는데 ‘신고’나 ‘제소’ 외에 내
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와 주변인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의 고려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사건처리 및 해결 과
정은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킴. 그동안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매뉴얼 등은 어디에 신고하라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어떤
선택지들이 있고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달은 대체로 부족한 편이었음.

성폭력 사건 해결지도 따라 길 찾기



Q&A로 성폭력 대처 방법 더 알아보기

Q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상황이나 대응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해결 절차와 법률 대응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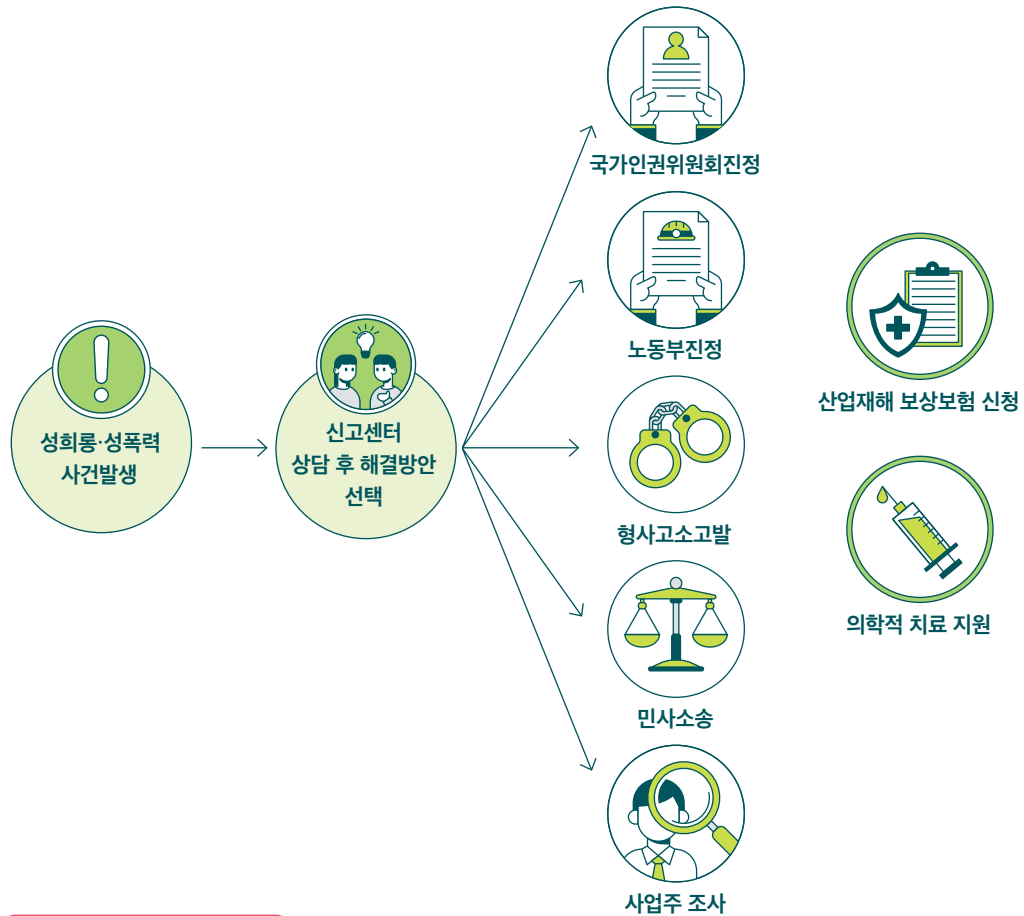


Q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해야 하나요?

A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와 먼저 상담을 하세요.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해결절차를 선택하고 사업주와 가해자에 대한 대응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으로 손상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산업재해 요양신청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예술인복지재단 성폭력피해신고센터(02-3668-0266)
- 여성가족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02-735-7544)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02-2263-6465)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02-3141-9090)
- 한국민우회 성폭력상담·여성연예인인권지원상담(02-335-1858, 736-1366)

Q

사업주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하고 해결하는 전 과정에 피해자를 보호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가해자를 징계조치해야 합니다.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 사업주의 금지조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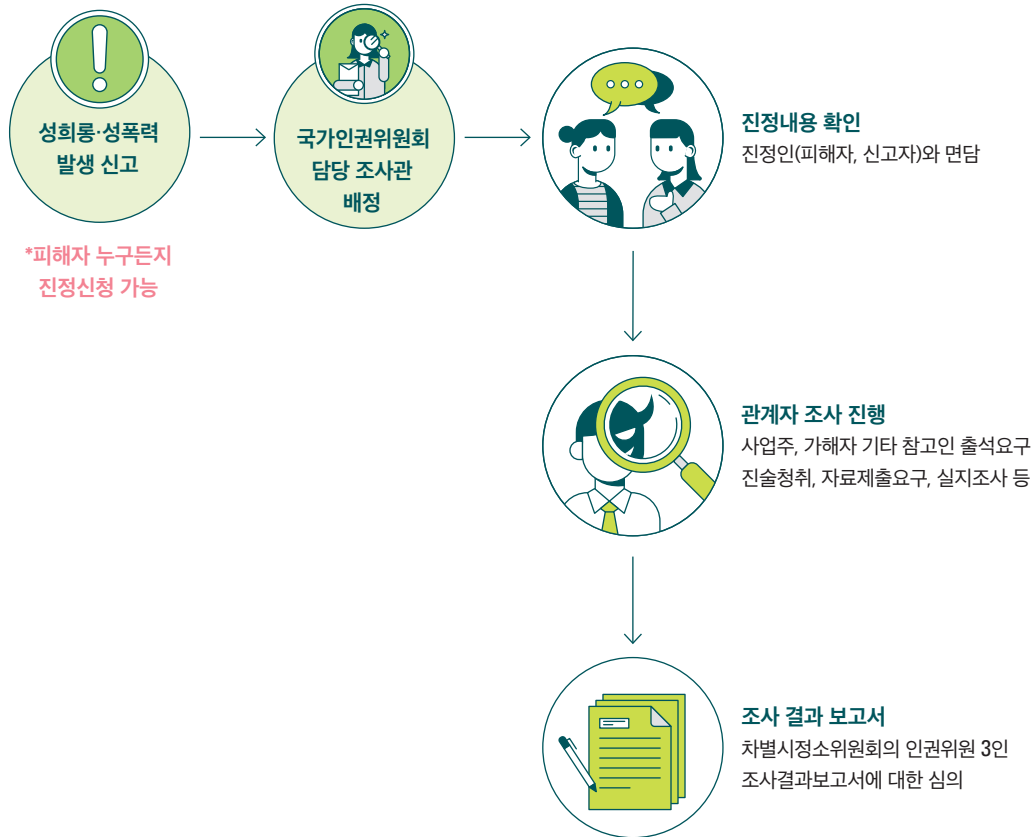
-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 상실 등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임금/상여금 등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나 그 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 그밖에 신고자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Q

성희롱과 성폭력 조사
과정이 알고 싶어요.

A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을 신고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행위자 징계를 권고하고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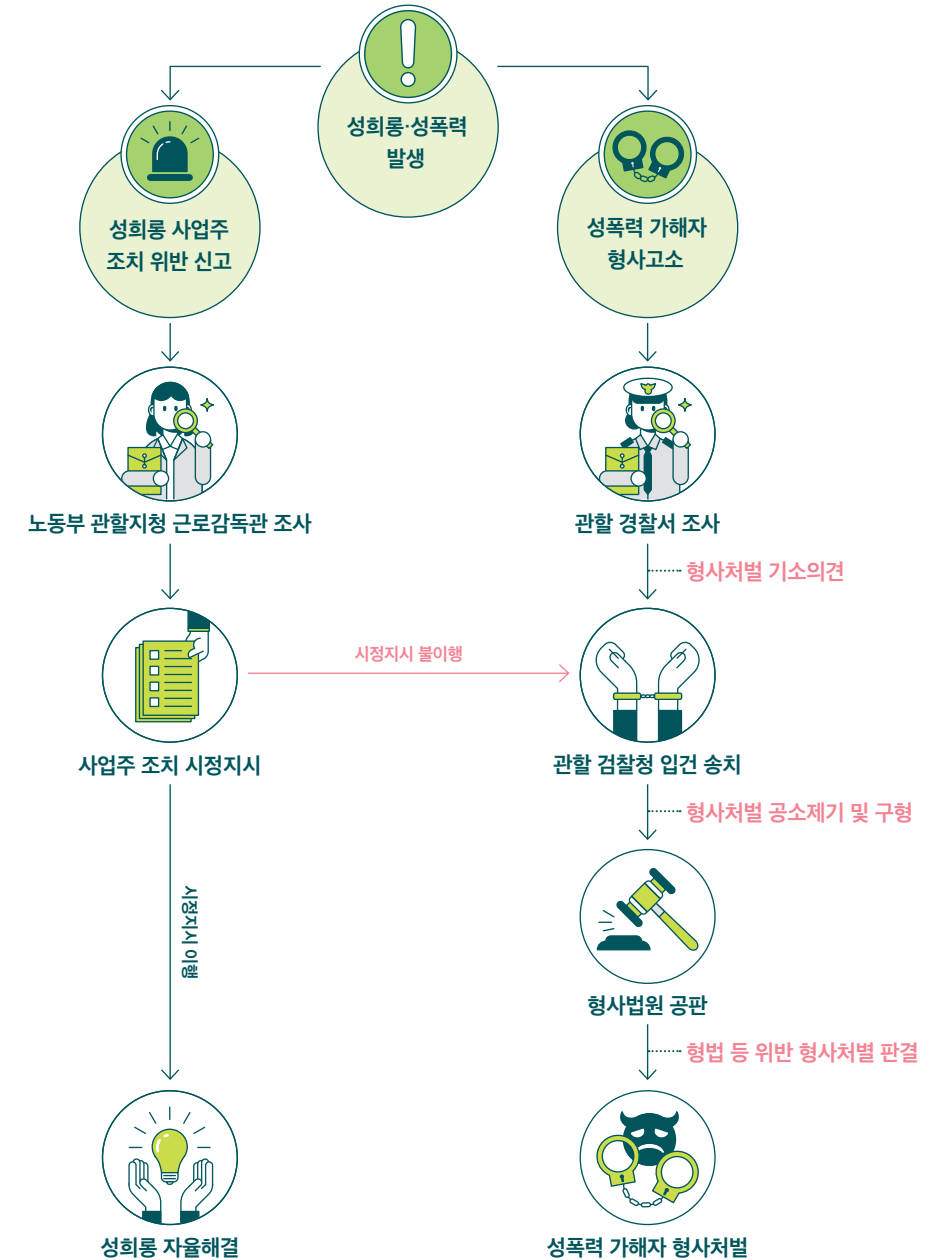
- 사업주와 가해자에 대한 권고
 - 사업주에게 행위자 징계권고
 -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권고
 -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고
 -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처리제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권고
- 피해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권고 등
- 범죄행위 고발조치
- 피해자 법률구조 요청

Q

노동부 진정 및 형사
고소, 고발 절차는
어떤가요?

A

사업주의 조치 위반과 가해자 형사 고소는 각각 진행됩니다. 사업주에게는 노동부 관할지청 근로감독관이 조치 시정을 지시하며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거쳐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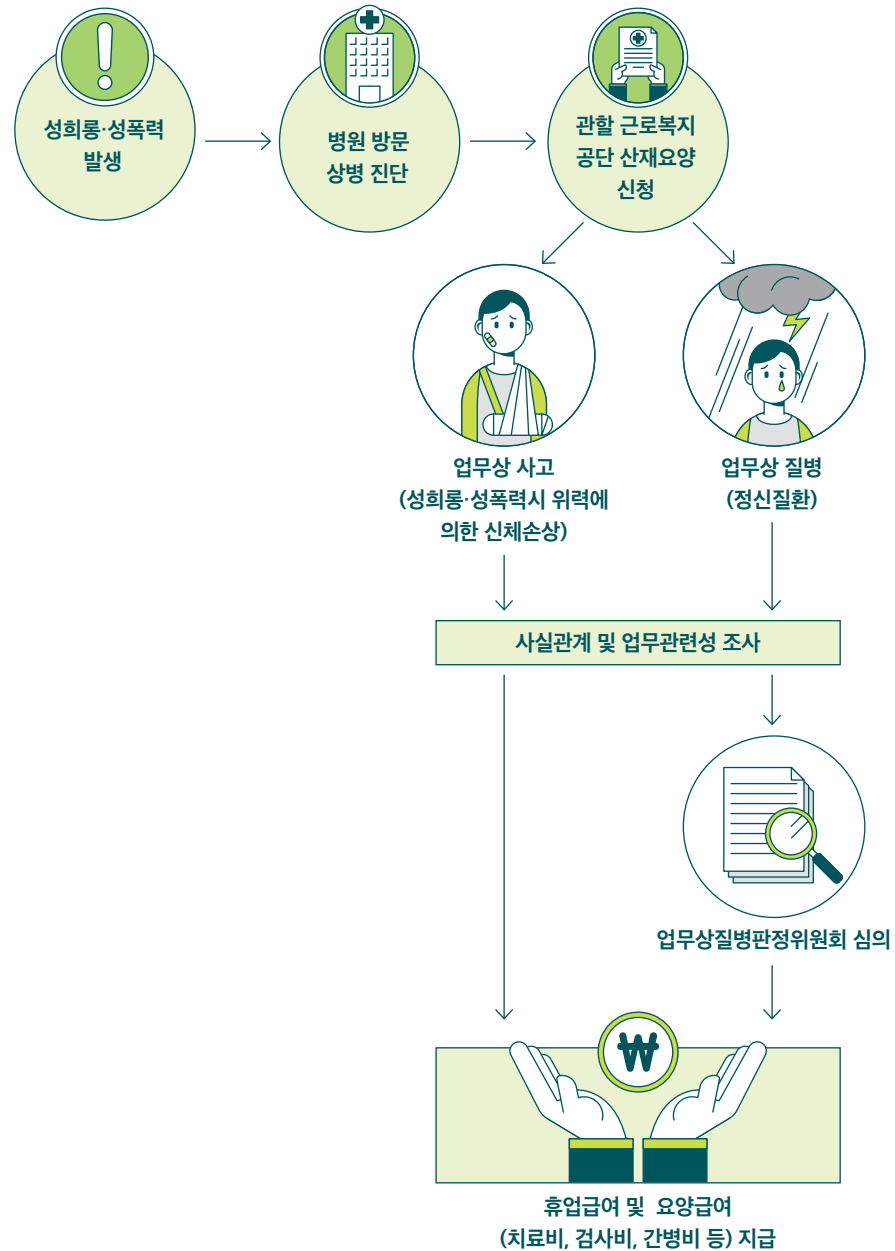


Q

일하다
성희롱·성폭력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A

병원을 방문해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신청하면 사실 관계 및 업무 관련
성을 조사해 휴업 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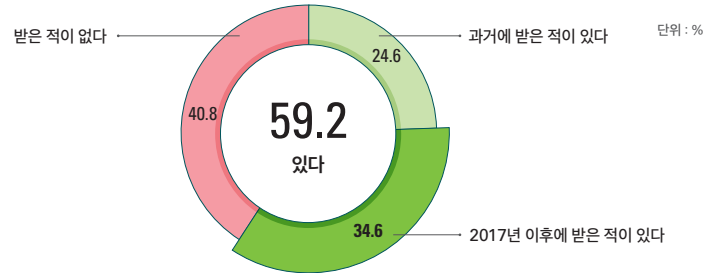
성폭력 예방하기

성폭력 예방교육	38
성폭력 근절 방안	40
성희롱·성폭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43

성폭력 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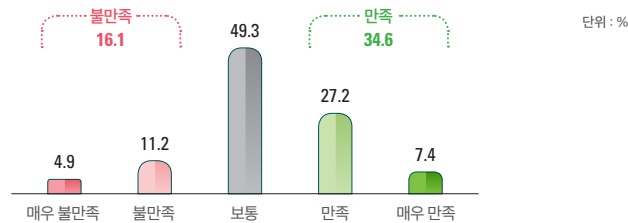
1. 성폭력 예방 교육 현황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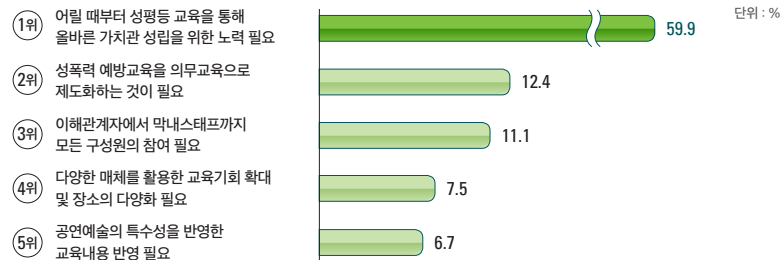
-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2%.
- 2017년 이후에 받은 적이 있다'는 34.6%, '2017년 이후에 받은 적은 없지만,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는 24.6%로 나타남.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나요?






-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34.6%로 나타남.
- 성폭력 예방교육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 비율은 16.1%임.

성폭력 예방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무엇이 가장 변화해야 할까요?



2.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p>예술계는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이 될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p>	 <p>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합니다.</p>	 <p>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작업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 • 예술적 분방함의 교육 • 집단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성희롱이 만연하고, 성적 경계 허물기 • 소수에 집중된 절대 권력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발생 • 성별 권력 불균형으로 인한 성 접대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수치심, 자살을 가져오는 정신적 고통 • 꿈으로 키워온 예술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관련된 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예술 활동에서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 예방 교육 효과

왜곡된 여성상을 구현하는 작품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예술 작품이 왜곡된 여성상을 구현하고 성폭력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이를 비판하지 않는 관습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공연예술계 종사자의 성인지감수성 강화

- 기관 및 단체가 교육과 토론을 통해 성폭력 관련 자치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커리큘럼이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연대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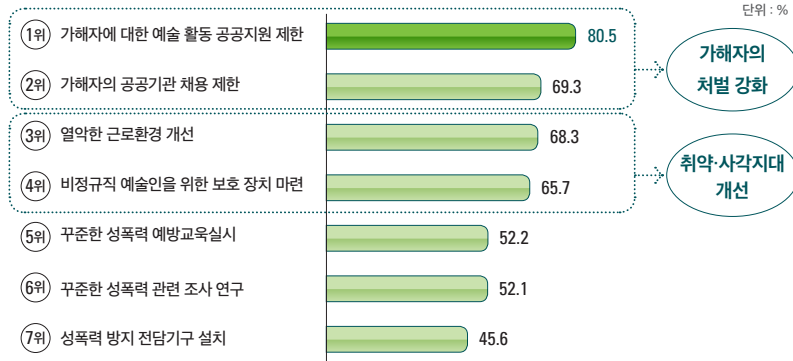
- 공연예술계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사회적 자원이 적극 활용되도록 고군분투하는 예술인들의 노력을 공유합니다.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 구조에 대한 사유

- 성폭력을 업무, 고용, 지위 관계를 이용한 '권력(power)의 문제'로만 한정짓지 않고 젠더폭력으로 이해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사각지대인 남성 성희롱 피해 문제, 여교사에 대한 남중생의 집단 자위행위 문제 등에서 성폭력은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 방안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공연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공연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요구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확산 및 지속적 인식 개선 교육 필요
- 보다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의 교육 내용 개선 필요
- 실질적으로 유익한 성폭력 예방교육 제안
- 인성 및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
- 단순히 실형이나 벌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및 다른 성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인지하는 순간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

②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 관련 요구사항

- 피해신고자의 철저한 익명성 보장 요구
- 가해자는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해주는 제도 마련
-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

③ 노동 환경 및 구조 관련 요구사항

- 예술계의 일자리 안정화 필요성 요구
- 문화예술계 고위 간부직 여성 비율 할당제 필요
- 임금해결 등을 포함한 예술인들의 인권문제 해결 시급

④ 기타 요구사항

- 예술인들의 현장 및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민감한 부분이라고 묵언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연극/뮤지컬/클래식 등 분야별 통합된 SNS 커뮤니티의 운용
- 예술가들을 리스트화해서 관리하는 컨트롤 기관 필요
- 성희롱/성폭력 관련 캠페인 활동
-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여 카드뉴스 방식으로 공론화하기

-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을 처리하는 첫 과정은 ‘사실 확인’입니다. 하지만 (주로) 가해자 쪽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성폭력 문제는 과거의 어떠한 ‘사건’을 끊임없이 소환함으로써 ‘기억’의 문제와 만나며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은 진실과 거짓을 둘러싼 투쟁의 현장입니다.
- 때문에 ‘완전히 옳은’, ‘완벽한’ 성폭력 사건 처리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하나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은 매번 수정되는 답을 거칩니다.
- 절대적인 매뉴얼과 완벽한 성폭력 사건처리가 존재하지 않듯이 성폭력 사건은 ‘공동체 내’에서 꾸준히 서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공동체에 맞는 방안의 모색’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예술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고민과 제언들

① 사실 확인(사안조사)의 과정의 중요성

사안조사와 사실 확인의 과정은 성폭력 가해행위와 피해영향을 확인하고 합의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종료되거나 일방적으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주장과 인식, 가해행위의 여부와 인식에 대해 맥락화하고 그 맥락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으로서 사안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② 사건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체성 회복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 인지하고 이를 공동체에 문제제기하여 피해에서 회복되기 위한 주체성을 의미합니다.

③ 공동체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의 의미와 가해자 책임이행

가해자가 책임을 인식하지 않거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로부터 배제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해결과정은 피해회복과 공동체의 책임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이행을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공동체(피해자 포함)는 가해자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피해자 대리인이 아닌 피해자 지지자

피해자 목소리를 대신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문제제기와 소통의 주체로서 피해자를 위치시키고 피해자의 일시적인 취약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피해자 지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여성민우회(2017),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해결’이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를 정지시키고, 상처를 보상·치유하고 인권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지칭합니다.
- 성폭력을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 모두의 감수성을 높여 해결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사건 해결 절차에 대한 이해와 합의 과정을 통해 사건 해결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폭력은 성차별적 조직 문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방식,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 등에 대해 주목하여 젠더 관점으로 조직문화를 환기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나아가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해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 가해자 교육 이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주어지는(필요한) 교육시간만큼 구성원들에게도 사건을 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구성원들이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지, 사건을 거치고 각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후 평가도 필요합니다.
- 피해자 치유에 관한 부분은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아픔으로만 여겼을 뿐, 이를 조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 치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가진 분노의 에너지가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공동체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 피해자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피해자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감정의 결을 읽고 보살피는 데 쏟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존 상담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건의 상대화, 맥락화, 부분화를 통해 상담자의 가치관 등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내가 생각하는 ‘YES’는 몇 개 인가요?” 아래의 ‘성희롱·성폭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당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해보세요!

문항	질문	YES	NO
1	성적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자주 나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공연이 끝난 후 회식이 잦으며 술을 강제로 권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캐스팅 관련 면접에서 결혼유무, 남자(여자)친구, 출산 등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받았거나 들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회식 때 업게 관계자나 스승, 선배, 동료 등으로부터 춤을 춰보라고 강요하거나 부르스를 추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공연 리허설 또는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동의 없는 스킨십을 자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유독 여성에게만 복장에 대해 지적하며 작품을 빙자해 선정적인 의상을 강요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업계 내 위계가 매우 강하여 뒷사람에게 어떤 의견도 개진하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여성이나 하급직원에게 반말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지방 및 해외공연 등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에서 취침하는 경우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여성의 외모나 성적 매력에 대한 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늦은 밤 선배나 동료가 일 때문이라며 호출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불필요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극단이나 공연장에서의 관리노동은 당연하게 여성의 몫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남성에게겐 역할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은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개: 성희롱·성폭력 발생 위험 낮음 → 건강한 조직문화
1~2개: 성희롱·성폭력 발생 위험 존재 →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필요
3개 이상: 성희롱·성폭력 발생 위험 높음 → 주변인 살피기/구성원들과 진지하게 자신의 조직문화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 필요

출처 : 한국여성노동자회(2018), 「성희롱·성폭력 셀프 체크리스트」

성희롱 사업주에 대한 규율법령, 무엇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④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⑨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⑩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벌칙)

-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과태료)

-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의4. 제14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의5.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의6. 제14조 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의7. 제14조 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법령, 무엇이 있나요?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

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조사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령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 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들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움말 : 박주영 노무사

기타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자료

-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매뉴얼(담당자용), 국가인권위원회
-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관리자용), 국가인권위원회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2018),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18), 여성가족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017), 고용노동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20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2015), 여성가족부
- 성희롱 예방 안내서(2013), 국가인권위원회

→ 해당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고센터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근절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합니다.

전화: 02-735-1050, 상담전화: 1366

홈페이지: www.stop.or.kr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치료, 임시보호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기관으로 의료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을 지원합니다.

(17개 시도, 171개소)

전화: 1366(지역번호 + 1366)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상담 가능 - 카카오톡에서 'women 1366' 검색,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omen 1366)과 친구맺기 후 1:1 채팅 진행

홈페이지: www.women1366.kr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평등 관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반성폭력 활동을 지향하며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사회개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2-737-5763, 성폭력 상담소: 02-739-8858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p>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알려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운동단체입니다. 상담을 통해 성폭력피해 생존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제언활동, 정책 감시 및 비판, 성폭력 통념을 깨기 위한 출판사업과 대중교육 등 활발한 반성폭력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p> <p>전화: 02-338-2890~2, 상담전화: 02-338-5801</p> <p>이메일: ksvrc@sisters.or.kr</p> <p>홈페이지: www.sister.or.kr</p>
한국여성의 전화	<p>한국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 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현재 전국 25개 지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조직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p> <p>전화: 02-3156-5400, 여성폭력피해상담: 02-2263-6464~5</p> <p>홈페이지: hotline.or.kr</p>
한국여성상담센터	<p>한국여성상담센터는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족문제, 성문제 등 여성문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상담프로그램과 상담관련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p> <p>전화: 02-953-1704, 성폭력 상담: 02-953-1504</p> <p>온라인 상담: www.iffeminist.or.kr/html/6-2.php</p> <p>홈페이지: www.iffeminist.or.kr</p>
해바라기센터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p>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합니다(2018년 기준 39개소 운영 중)</p> <p>전화: 02-3672-0365(서울해바라기센터 대표번호)</p> <p>홈페이지: www.help0365.or.kr</p>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p>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는 게임, 방송, 음악, 패션,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계 성폭력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의 신고, 접수부터 상담과 치유까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산업계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p> <p>전화: 1670-5678(내선번호 1번)</p> <p>온라인 상담: bora@kocca.kr</p> <p>홈페이지: bora.kocca.kr</p>
예술인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p>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p> <p>전화: 02-3668-0266, 02-1670-5678(내선번호 3번)</p> <p>온라인 상담: withu@kawf.kr/(비공개 게시판)</p> <p>홈페이지: www.kawfartist.kr</p>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p>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출 촬영물 삭제, 법률·의료 등 연계지원을 제공하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게시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p> <p>전화: 02-735-8994</p> <p>홈페이지: www.women1366.kr/stopds/</p>
전국 성폭력 피해 전담의료기관	<p>성폭력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해 국립, 공립병원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보건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합니다.</p> <p>(2018년 기준 332개소 운영 중)</p>
전국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p>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전화: 132</p> <p>홈페이지: www.klac.or.kr/html/view.do?code=1069</p>
국가인권위원회	<p>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학교, 군대, 자원봉사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p> <p>전화: 1331</p> <p>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p>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p>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담당합니다.</p> <p>전화: 02-735-7544</p> <p>홈페이지: www.mogef.go.kr/msv/metooReport.do</p>
고용노동부	<p>민간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 업무를 담당합니다.</p> <p>전화: 1350</p> <p>홈페이지: www.moel.go.kr/index.do</p>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7),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 국가인권위원회(2013), 「성희롱 예방 안내서」
- 문화체육관광부(2018), 「공연예술분야 성(性)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 서울해바라기센터(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서」
- 여성가족부(2015),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 여성가족부(2018),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여성가족부(2018), 「불편한 연극」
- 한국여성노동자회(2018), 「성희롱·성폭력 셀프 체크리스트」
- 한국여성민우회(2017),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토론회」
-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나눔터」
-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보통의 경험」

발행일 2019년 4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 베이스라인 www.baseline.co.kr

